“종단 안정·화합 위해 해종행위자 대화합 조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1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단 안정과 화합을 강조했다. “혁신은 종단 안정과 화합이라는 바탕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원행 스님은 지난 2018년 종단혼란기에 해종행위자로 지목된 54명 스님들에 대한 대화합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행 스님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종정스님께서 종단 혼란의 시기 다소 다른 견해와 의견을 제시했던 스님들에 대해 대화합 조치를 당부하셨다”며 “종정예하의 가르침에 따라 중앙종회와 긴밀히 협의해 대화합 조치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1994년 멸빈자에 대한 사면논의도 중앙종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1994년 멸빈자에 대한 사면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역대 총무원장스님들도 꾸준히 이 문제를 추진했지만 종헌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라 되지 않았다”며 “이분들은 그동안 참회의 뜻을 밝혔고, 많은 종도들도 그 뜻을 이해하리라 본다. 종정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이날 종단 혁신을 위한 사업과 함께 “백만원력결집을 통해 불교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백만원력결집’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하루 100원을 보시하는 불자 백만 명을 모으자는 것으로 원행 스님이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불사다. 스님은 “지난해 우리는 한국불교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불법승을 주제로 백만원력결집을 선언하고 불자들의 원력을 모아내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며 “그 결과 전국 제방각지에서 수많은 불자님들의 원력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기금으로 80억원이 희사되는 등 백만원력결집 불사 선포 첫 해부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15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자년 종단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원행 스님, 1월15일 신년회견서 밝혀…94년 멸빈자 사면도 검토
백만원력결집 지속 추진·전통문화 활용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

총무원에 따르면 조계종은 3월말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시작으로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종단 요양원 건립 △위례신도시 도심포교당 건립·세종시 한국불교체험한 건립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원행 스님은 또 “올해 전통문화를 활용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콘텐츠로 평가되고 있는 템플스테이를 활용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말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연등회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예정된 통도사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와 금산사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원행 스님은 “2020년은 화합과 혁신, 평화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 사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면서 “조계종은 백만원력으로 미래를 밝히고 안정과 화합, 혁신으로 사부대중에게 든든한 의지처가 되고, 국민들에게 평온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출범 20년 포교사단 “종단 핵심 단체 될 것”

1월13일, 총무원장·포교원장 예방
9월 중순 시청광장서 십선계 법회

포교사단(단장 방창덕) 임원진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잇따라 예방하고 경자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포교사단(단장 방창덕) 11대 임원진들은 1월13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사진〉하고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치러질 행사와 각종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방창덕 단장과 이정상 감사, 김영석 수석부단장, 서울·부산·대구 등 국내 13개 지역단장 20여명이 참석했다. 4500여명의 포교사들을 대표해 총무원을 찾은 방창덕 단장은 이날 “포교사단 출범 20주년을 맞아 종단 핵심 재가 단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포교사단은 출범 20주년을 맞아 팔재계 수계법회에서 한 단계 발전한 십선계 수계법회를 9월 중순 경 서울광장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5000여명의 포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진하는 모습만으로도 불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큰 울림이 될 것”이라며 “십선계 수계법회가 서울시 청광장에서 열리는 만큼 여법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사단의 역사와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포교사단 20주년 백서’와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기로 했다. 이밖에 포교활동 환경 변화에 다른 정관 개정과 13개 지역단에서 통일된 의례를 봉행할 수 있도록 의례집을 제작 보급해 종단 핵심 재가신도단체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포교사단은 스님과 신도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임을 맡고 있다”며 포교와 전법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방창덕 단장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도 예방했다.

지홍 스님은 “젊은이들을 위한 포교는 미래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포교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지역에서는 스님들과 잘 소통해 포교사로서 불교발전에 힘 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신도회와 연대 사업을 강화하고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일일시호일, 탈북 대학생에 장학금 200만원

1월15일, 통일바라밀숲 함께
대학생 1명에 200만원 지원

상생 실천의 일환으로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일일시호일(대표 심정섭)이 탈북 이주대학생을 후원했다.

일일시호일은 1월15일 통일바라밀숲(대표 남지심)으로부터 추천받은 탈북 이주대학생 1명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사진〉했다. 일일시호일은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이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돕고, 치료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며 바라밀행을 실천하고 있는 법보신문의 공익법인이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늦깎이 대학생 김원일(가명) 학생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면서 “한국에서 취업이 힘들다고 하지만 졸업 후 바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원이 되고 싶다”는 김원일 학생은 현재 인천 모 대학교에서 금융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올해로 한국 생활 11년 째를 맞고 있다.

김원일 학생은 “처음 한국으로 올 때부터 지금까지 남들보다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워런 버핏처럼 성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 싶다”고 했다.

심정섭 대표는 “이 장학금은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도움을 주신 많은 인연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고, 훗날 더 많은 이들에게 봉사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일시호일은 탈북 이주 대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통일바라밀숲과 ‘탈북 이주 대학생 지원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장학금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모금계좌 농협 301-0189-0372-01 (사)일일시호일. 02-725-7010

한태식 인턴기자 ts@beopbo.com

2회 ‘상월선원 합창축제’도 열려

1면에서 이어짐

‘상월선원 방함록서’에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와 상월선원의 연혁 및 설립 배경, 결재대중의 발원과 계송 등을 혜거 스님과 한 선객의 대화로 전하고 있다. 혜거 스님은 ‘상월선원 방함록서’를 통해 “상월 도량의 주산은 일명 청량산이오, 일명 일장산이라 한다. 청량이란 본지풍광을 말하고, 일장이란 촌음을 아끼는 것을 말하는 바, 선승납자의 찬 서리 아래 소나무와 같은 고결한 지조와 강물 위에 비친 달빛처럼 허명한 흉금은 그 청량산의 기풍을 말해주고, 천지 사이에 하루 해는 두 번 다시 드는 일이 없기에 차가운 천막 아래에서 고행 정진을 하는 것은 그 일장산의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고 찬탄했다.

혜일 스님은 “2월7일 해제날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월선원을 찾아 스님들의 원력에 힘을 더하고 있는 만큼 상월선원 외호대중도 1월30일부터 용맹정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2회 상월선원 합창축제’가 펼쳐졌다. 합창축제에는 봉은사, 금강정사, 불암사, 도선사, 정혜사, 한국불교다르마합창단 등 7팀이 참석해 찬불가로 스님들의 결사 정진을 응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성해 법상스님과 함께하는
천수대다라니 108독 성취기도

국보 제308호 북미륵암 마애여래불의 영험이 깃든 해남 대흥사에서 기도성취 천수대다라니 108독 기도를 봉행합니다. 천수대다라니 기도를 통해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일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5시~8시30분
장소: 대흥사 보현전

* 참가자에게는 오후 4시부터 국수공양이 제공됩니다.
* 천수대다라니 기도를 빠지지 않고 10회와 21회 참석한 불자님에게는 주지스님이 특별 제작한 단주와 108염주를 증정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법상 합장